“사찰서 쉬고 싶어 성주사에 왔어요!”

창원 성주사, 템플스테이 문화도량 성장 ‘눈길’

창원 성주사가 템플스테이로 지역민과 소통하는 문화도량으로 성장하고 있어 화제다.

12월 16일 이른 아침 방문한 창원 성주사(주지 원종) 템플스테이 현장에서는 스님을 둘러싸고 둥글게 앉은 학생들이 눈에 띄었다. 성주사에서 진행하는 꿈나무 템플스테이에 방문한 명곡고등학교 학생들이다. 참가인원은 10여 명으로 적지만 이번 템플스테이까지 포함하면 벌써 4번째 방문이란다. 학생들은 금요일 저녁 학교를 마치고 찾아와 밤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스님과의 차담에서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명곡고교에서 찾아온 학생들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인 달빛 탑돌이, 사경대회, 미션, 성주사 문화재를 찾아라 등에 참여하고 불교문화를 친구들과 접해 즐거웠다고 했다. 차담을 마친 학생들은 자유롭게 도량을 거닐며 차가운 바람도 시원하다며 즐거워했다. 성주사는 학생들을 위한 열린 도량을 지향하며 템플스테이를 상시로 열고 언제나 찾아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주사는 뛰어난 템플스테이 운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한 해 방문한 외국인과 학생이 총 2000여 명에 이른다. 특히 성주사를 방문한 참가자들은 재방문하고 싶은 템플스테이로 성주사를 손꼽는다. 성주사는 학생들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유치원생, 경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템플스테이에 참가한다.

주지 원종 스님은 템플스테이의 성장 동력으로 ‘정성과 친절’을 꼽았다.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기 위해 모인 모든 팀원과 사찰 소임자 그리고 공양주까지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곧 포교의 시작이 된다고 강조했다.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험과 문화에서 불교에 대한 이

연간 남녀노소 2000명 동참
‘정성’과 ‘친절’로 다가가고
외국인 · 아빠 프로그램 개발
“불자 위한 수행스테이도 준비”

미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사실 잘 살펴보면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과 행동에 따라 불교는 결정됩니다. 짜증내는 사람을 사찰에서 만나면 불교는 짜증내는 종교가 되어 버리죠. 그래서 모든 봉사자와 일반 재가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친절입니다.”

친절이라는 튼튼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성주사는 이와 함께 참가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즐길 거리를 마련, 다양한 계층이 참석하도록 유도해 큰 성공을 이뤘다.


성주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명곡고교 학생들과 주지 원종 스님. 학생들은 이번이 4번째 템플스테이다. 창원 성주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템플스테이로 각광받고 있다.

먼저 지난 한 해 외국인 K-POP 경연 참가자를 위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14개국에서 찾아온 69명의 외국인 참가자와 방송 관계자까지 100여 명이 템플스테이에 참여했다. K-POP 한국문화를 좋아해 찾아온 외국인들은 촛불명상, 소원지 작성, 연등 달기 등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하며 최고라고 입을 모았다. 또 사찰을 찾기 어색해하는 아버지를 위한 프로그램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매년 아버지 참여 수업을 열어 ‘아빠와 함께 하는 1박2일’을 진행한다. 부제는 ‘엄마 없이 살아보기’로 어린 자녀와 추억을 쌓도록 돕고 사찰 방문을 편하게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자 거사 포교의 일환이기도 하다.

성주사 템플스테이의 성공 요인 중 또 다른 하나는 진취적인 자세다. 템플스테이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성주사는 사단법인 경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 창원 서부경찰서 등 여러 기관과 MOU를 체결했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 많은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원종 스님은 “현재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사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성주사 템플스테이는 포교를 위한 중심처가 될 뿐 아니라 신도들에게 수행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참된 포교를 위해선 수행자가 수행자다워야 하고 불자가 불자다워야 한다”고 강조한 뒤 불자를 위한 템플스테이도 마련할 것을 밝혔다. 하성미 기자

연제구불교聯, 팥죽으로 새해 기원

시민 2000명에게 나눠



새해 희망찬 광명을 기원하며 옛 조상들은 동지에 팥죽을 나눴다. 부산연제구불교연합회 스님들도 이 같은 세시풍속에 따라 시민과 팥죽을 나누며 밝은 새해를 기원했다.

부산연제구불교연합회(회장 무관)는 12월 17일 ‘정유년 따뜻한 동지팥죽나눔행사’를 부산시청등대광장에서 개최했다.〈사진〉 연제구불교연합회는 매년 동지를 맞아 팥죽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2000인분을 마련했다.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사부대중은 광장에서 개회식을 진행했다. 개회식에는 회장 무관 스님, 부회장 화엄사 법승 스님을 비롯해 보은사 월광 스님, 은진사 천웅 스님 등 연합회 스님들과 각 사찰 신행 봉사단 50여 명이 동참했다.

회장 무관 스님은 “동지는 우리 민족 전통문화이다. 동지를 기점으로 점점 해가 길어진다”며 “팥죽 나눔은 송구영신을 의미한다. 연제구 스님들이 오늘 진행하는 팥죽 나눔으로 행복을 함께 기원하고 새해를 맞이하자”고 인사말을 전했다.

부회장 법승 스님은 “연제구불교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무관 스님을 비롯해 모두들 고생 많으셨다”며 “다음 해는 앞으로 더욱 단합되길 바라며 추운 겨울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추길 바란다”고 화합을 기원했다. 하성미 기자

금정총림, 소외 이웃 위한 자비의 쌀 전달

12월 19일 금정구청에 5000kg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금정총림 범어사가 자비의 쌀을 전달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발원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는 12월 19일 금정구청에 방문, 자비의 쌀 5000kg을 전달했다.〈사진〉 자비의 쌀은 독거어르신을 비롯해 지역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이웃에게 전달된다. 전달식에는 주지 경선 스님, 부주지 범산 스님, 원주 석경 스님을 비롯해 범어사 내 신행단체 대표 10여 명이 참석했다.

경선 스님은 “추운 겨울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찾아왔다”며 “앞으로 자비 나눔을 실천하기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정희 구청장은 “범어사는 금정구뿐 아니라 부산을 대표하는 사찰로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협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종교인평화회의 순례로 종교화합 나서

종교간 이해와 화합을 위해 부산종교인평화회의 대표들이 제주에 위치한 종교 시설 및 사찰을 방문했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회장 목종)는 12월 15일~17일 제주 종교시설 순례를 실시했다. 순례에는 부산종교인평화회의 회장 목종 스님, 고문 정각 스님, 박차귀 · 박호권 천도교 선도사, 이정식 · 김대준 원불교 교무, 박동신 성공회 주교, 이성호 신부, 김두호 기장향교 사무국장 등 12명이 참여했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는 유교를 설명하는 ‘제주향교’를 시작으로 원불교 국제훈련원과 요양원, 제주 국조전(선교)을 방문했다. 천주교 대표 순례지는 ‘성 이시돌 센터’를 찾아 재단의 창시자 맥 그린치 신부의 일대기를 경청했다. 아울러 산방산 보문사와 서귀포에 위치한 약천사를 찾아 불교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활동을 고찰했다. 하성미 기자

사랑의 연탄배달 “자비로 추위 녹인다”

부산불교교육대학 비롯해 사부대중 훈기 나누기 총력

연말연시 따뜻함을 나누는 불교계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부산불교교육대학과 자비나눔실천 승가단체인 화엄승가회,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이 연탄 1만장과 포항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자비성금을 전달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과 화엄승가회(회장 자인),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이승표)은 12월 16일 부산진구 개금3동 주민에게 연탄 1만장을 전달했다.〈사진〉 매서운 한파가 몰아친 겨울 주말, 스님과 불자들은 한 줄로 길게 서서 연탄을 배달했다. 따뜻한 겨울나기를 발원하며 조심스럽게 집집마다 연탄을 전달해 훈기를 가득 채웠다. 추운 겨울이지만 이내 구슬땀이 흘렀고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



자비의 연탄나눔은 지난해 11월 화엄승가회장 자인 스님의 제안으로 올해 1월 처음 50여 명이 동참해 시작됐다. 이번 연탄 나눔에는 사부대중 500여 명이 직접 참여해 많은 동참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부산불교교육대학장 범혜 스님은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따뜻한 마음을 내어 많은 대중이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부산불교교육대학이 자비의 연탄 나눔 행사에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자인 스님께 한 번 더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화엄승가회장 자인 스님은 “오늘 연탄 나눔은 스님과 동문 모두가 한마음을 내줘서 가능할 수 있었다”며 “부처님께서 제일 큰 복을 짓는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배고픈 자에게 밥 주는 것이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 뜻을 이루고자 오늘 이 자리에서 행사를 열게 됐다”고 취지를 전했다.

이승표 단장은 “우리의 수고로움으로 다른 이가 행복하게 되는 것은 고마운 일”이라며 “추운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자비 연탄 나눔 행사에 참가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한편 이날 연탄 나눔에 앞서 포항 지진 복구를 위해 모은 성금 100만원을 BBS부산불교방송에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선재들의 공덕으로 사회 맑히자”

선재공덕회, 봉사 · 후원인의 밤



대구불교사원연합회(회장 선지) 신도회가 선재공덕회 자원봉사자 · 후원인의 밤을 12월 14일 대구 파라다이스 컨벤션웨딩에서 개최했다.〈사진〉 이번 행사에는 연합회장 선지 스님과 선재공덕회 운영위원장 정효 스님, 마하야나불교문화원-우리불교문화원장 해월 스님,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연합회는 강정규 신도회장을 비롯해 5명의 봉사자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수여했다.

선재공덕회 운영위원장 정효 스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후원해주시는 분이나 부설기관 임직원에게 감사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선재공덕회가 영원히 지속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대구불교사원연합회장 선지 스님은 “선행으로 나를 낮추고 이웃을 공경하며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선재공덕회가 아름다운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시마

격조 높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안내문

1. 무속의 영점, 신점이 아닙니다.
2. 주역, 타로, 사주, 점성술 등의 역술도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3. 순수하게 영적인 에너지만을 최대한 활용해서 보는 기묘한 점술입니다.
4. 고도의 집중력과 강력한 에너지장을 떠올려서 보고 듣기에 적중률이 뛰어납니다.
5. 본인 점술의 최대 장점은 질문자가 물었을 때 두리뭉실하지 않고 깊이 있고 다양하며 상세하게 답변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 담 료 : 10분 이내 7만원, 20분 이내 14만원 .....
10분 마다 7만원씩 분할결제 가능 (선불제)

상담가능시간 : 오후 1시 이후

연 락 처 : 010-9546-9797

시마(XIMA) 배상

사찰 증축
사찰 개축

■ 가건물 (주차장, 공양간, 창고)
■ 조적, 미장, 마루 일체
■ 불단 샌딩, 법당 샌딩
■ 실내 인테리어 일체

전화 02)990-5121
010-5309-2119

경원 불사

빙의(귀신들림) 치유 상담 환영!!

몸안에 들어온 영가 빼내는(천도) 전국 최고의 실력으로 보답합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싯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마다 가위눌리는 경우.
• 불면증 심하거나 자면서 비명 지르고 헛소리, 중얼거림이 심한 경우.
• 어느 싯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희귀병 투병중인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 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중,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행동, 폭력적행동, 학습능력 저하, 자살 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 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동물령, 식물령도 천도 가능함.

[꼭 천도해줘야 할 영가]

• 자살(음독,목매어,투신)했거나 원한이 많은 상태로 죽은 경우.
• 갑작스런사고, 병고, 심장마비로 죽은 경우.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 원격 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 가능)

상담 문의처 |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